

미국 뉴스위크 평가 5개 임상분야 세계 10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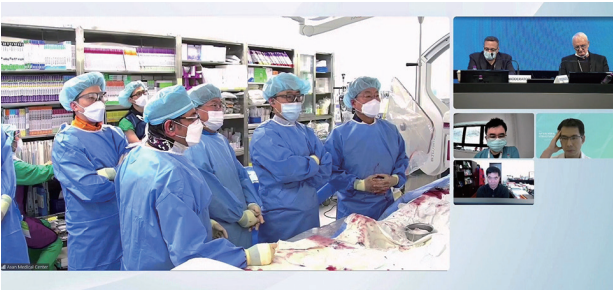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12개 임상분야별 세계 병원 평가에서 서울아산병원이 5개 임상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들었다. 9월 14일 뉴스위크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내분비 분야 세계 3위를 비롯해 비뇨기 4위, 소화기 5위, 암 6위, 신경 8위를 차지하며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 세계 최정상급 의료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국내 1위를 차지한 분야는 내분비, 비뇨기, 소화기, 신경, 심장, 심장수술로 총 6개에 달했다. 지난해에 비해 심장 분야는 6단계, 심장수술 분야는 2단계 상승했고 소화기, 암, 신경, 정형 분야는 한 단계 상승했다. 이외에도 정형 11위, 호흡기 32위, 심장 33위, 심장수술 52위, 소아 65위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초 뉴스위크가 발표한 세계 250개 병원 종합 순위에서 서울아산병원은 세계 29위, 국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제12회 심장판막 및 구조 심질환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 개최



제12회 심장판막 및 구조 심질환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 (AP VALVES & STRUCTURAL HEART 2023)가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그랜드 워커히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회에는 온라인 540명, 오프라인 217명 등 총 757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전 세계 심장질환 분야 권위자들이 참여해 고난도 심장 판막 시술 사례들을 다루며 실제 임상에 적용 가능한 최신 술기를 소개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이외에도 차기 심장 전문의들의 케이스 발표, 최신 기기를 사용한 임상 사례와 시술법 등이 소개됐다.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단, 키르기스스탄에서 2,500여 명 치료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단이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울아산병원은 2009년부터 의료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총 14개국에서 53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의사 15명, 간호사 22명 등 총 46명의 서울아산병원 직원과 가족 등이 참여했으며, 나흘간 총 2,500여 명을 치료했다. 현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중증 환자 수술도 이뤄져 치료와 함께 현지 의료진에게 의료기술도 전수했다. 🇰🇷